

이낙연 대표 “군(軍)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적극 노력” 약속

이용섭 시장 “국책사업 이기에 국방부 역할 강화 부탁”

이 대표 “5·18 특별법 당론 추진...묘지 확장사업 협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지역 최대 현안이 군(軍)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등에 적극 협조키로 약속했다.

(관련기사 2면)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전남 광주를 방문한 이낙연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5·18특별법 개정 ▲5·18묘지 제2묘역 침수 대책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책사업이

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방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광주 시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전남 이전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포함한 5·18 특

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5·18묘지 2묘역 침수 정비와 확장 사업도 하루 빨리 용역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과 이 대표는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1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빛그린산단 조성 당시 각각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과 전남 함평 국회의원으로 협력했던 특별한 인연이 있다.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조만간 광주형 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이용섭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광주시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타계’ 글로벌 초일류 기업 키워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재계 거목 이인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관련기사 11면) 이 회장은 6년 투병 끝에 별세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

고 6년 간 투병해왔다. 당시 이 회장은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인근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았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막힌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고 심폐 기능이 정상으로 되찾자 입원 9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병원 20층에 있는 VIP 병실로 옮겨져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타계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이인희 회장께서 2020년 10월 25일 별세했다”며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

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42년 1월9일 대구에서 고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일본에서 중학교를, 서울에서 서울사대부고를 졸업했으며 일본 와세다 대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이 회장은 2014년 입원 전까지 약 27년간

**6년 투병 끝 별세...향년 78세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 입원
27년간 삼성그룹 성장 이끌어**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이후 1987년 12월 삼성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반도체 사업 등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글로벌 무대에서 다스려오던 삼성전자를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키워냈다.

정승호기자

이용섭·김영록 ‘10월 회동’ 최소 2차례...상생·통합 ‘첫술’

광주·전남 통합과 상생이 지역 사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통합 주체인 두 광역자치단체의 수장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이달안에 최소한 2차례 회동할 것으로 보여 큰 틀에서 통합과 상생의 첫술을 뜬 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11월 중 열릴 예정인 민선7기 세번째 시·도상생발전위원회를 앞두고 양 기획관리실장을 주축으로 오는 27일 오후 3시 전남도청에서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27개 상생협력 과제 중 최근 첨예한 갈등으로 이슈화된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을 핵심 현안으로 보고 공항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밀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 통합 문제는 논의다. 워낙 거대 담론인데다 시·도지사도 직접 만나 통합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그동안 드러난 시각차와 이견을 좁히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실무협의 전후로 따로 회동할 예정이다. 실무협의 후 비공개 회동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당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지만 협의대상인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와 협의 시간이 각각 달라 한 자리에 모이긴 어려울 전

**내일 전남도청서 비공개 회동 예정
29일 ‘호남권 포럼’ 동반 참석 가능
“심도있는 통합연구 선행돼야”**

망이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전략회의 후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스치듯 만나는 수준이나 가벼운 차담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지역 관심사인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자리에서 단독 회동하는 개연성이 높다.

이어 두 단체장은 오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광주시·전남도·전북도·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지역균형뉴딜 호남권포럼에 참석할 경우 또 다시 만나게 된다.

앞서 지난 15일 대구·경북권, 20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포럼에 해당 광역단체장 대부분이 참석한 점과 한국판 뉴딜과 맞물려 초광역 경제권과 행정통합, 광역연합 등을 통한 ‘슈퍼 지자체’에 대한 밀그림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아 두 단체장의 동반 참석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10월 회동’을 통해 ‘시·도통합’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장이 “통합방식과 시기는 최종적으로 시·도민 의견에 따르겠다”고 뜻을 같이한 가운데 이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통합논의기구에서 공동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하겠다”고 공언했고, 김 지사도 지난 15일 3단계론을 통해 통합 연구과 공론화 과정을 1, 2단계로 제시한 상황인바 10월 회동에서는 이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일종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시·도 공동논의기구 구성, 공동 연구용역 발주, 연구결과 토대로 한 시·도민 공론화를 거쳐 통합 방식과 목표 시기, 과제 해결 대안 제시 등이 이뤄지는 로드맵이 유력하다.

민간·군공항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등 첨예하게 얽힌 현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광역단위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 관계자 간 의견 수렴, 국내·외 사례 분석, 통합조직의 기본 방향과 공간 구상, 행정통합 추진 체계,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통합연구가 선행돼야 할 시기고, 시·도지사 단독 회동은 첫 단추”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핀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